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승 미

2016년 8월

중학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이 승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이승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8월

<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이 승 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 제주시 한 개의 학교와 서귀포시 두 개의 학교를 임의표집 하여 제주시 중학교 1학년생 210명과 서귀포시 190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015년 12월 7일에서 25일까지 약 3주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으로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독립표본 t 검증,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후,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은 부분적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진로성숙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학교적응 수준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은 대체적으로 하위요인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도,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변인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는 대체로 정적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단지, 진로성숙도의 목적성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전체와의 관계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지만 유의미하지 않았고, 목적성과 자아탄력성 전체와의 관계는 미약하게 정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하위요인별로 볼 때 호기심 외에는 다른 요인들은 정적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진로성숙도가 부분 매개하여 학교적응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본다면, 진로의 준비성, 결정성, 확신성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진로의 목적성, 독립성은 통계적으로 매개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진로성숙도를 매개하여 학교적응을 높이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의 신장과 진로교육의 연결을 고려해 보고, 개인마다 자아탄력성의 고취와 진로교육 및 진로프로그램을 통한 성숙한 진로태도가 학교적응을 원만히 하여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방적 방안을 검증하였기에 학교적응 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할 것을 기대 한다. 이와 함께 진로성숙도 신장을 위한 학교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 하고 진로성숙도가 학교부적응 상담의 개입전략에 적용되거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치료적 차원의 접근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 된다.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5
3. 연구모형	6
4.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1. 개념 정의	9
가. 자아탄력성	9
나. 진로성숙도	14
다. 학교적응	18
라. 자유학기제	21
2. 변수간의 관계	25
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25
나.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	27
다.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	28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30
2. 측정도구	30
3. 연구절차 및 분석 방법	35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	37
2.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비교	40
3.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변인 간 상관 분석	44
4.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 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검증	48

V. 논의 및 결론	
1. 결과에 대한 논의	61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65
참고문헌	69
Abstract	79
부록목차(설문지)	81

표 목 차

표Ⅱ-1. 제주도 중학교 1학년 학생 수 (2015. 4. 1 기준 제주도 교육청 자료) …	22
표Ⅲ-1.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	32
표Ⅲ-2.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	33
표Ⅲ-3.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	35
표Ⅳ-1.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 ……………	37
표Ⅳ-2.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 ……………	38
표Ⅳ-3.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 ……………	39
표Ⅳ-4.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분석 ……………	41
표Ⅳ-5.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의 차이 분석 ……………	42
표Ⅳ-6.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의 차이 분석 ……………	44
표Ⅳ-7.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	45
표Ⅳ-8.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	49
표Ⅳ-9.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서 진로 결정성의 매개효과 ……………	52
표Ⅳ-10.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준비성의 매개효과 ……………	54
표Ⅳ-11.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확신성의 매개효과 ……………	57
표Ⅳ-12.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독립성의 매개효과 ……………	59
표Ⅳ-13.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목적성의 매개효과 ……………	60

그림 목 차

그림Ⅲ-1. 가설적 연구모형	6
그림Ⅳ-1.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50
그림Ⅳ-2.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결정성의 매개효과	52
그림Ⅳ-3.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준비성의 매개효과	55
그림Ⅳ-4.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확신성의 매개효과	5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사랑과 존중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이런 삶의 행복은 현재 살아가는 생활의 만족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가의 문제는 단지 성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의 만족도 뿐 만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적인 정신건강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김두환, 김지혜, 2011; 김신경, 박민경, 2014).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주목하여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조성희, 박소영, 2015), 자아정체감(서진숙, 이동혁, 2010), 자아 존중감(김지혜, 2012), 등의 개인적 요인과 가족지지(이명순, 변미희, 2007),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김두환, 2011), 또래 애착(김상미, 남진열, 2011)과 같이 관계를 둘러싼 환경요인과 학업(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학교생활적응(김신경, 박민경, 2014; 조성희, 박소영, 2015) 등의 학교관련 요인이 있다

그 중, 학교에서 대부분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학교생활적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일 수 있다. 여기서, 적응이란 신윤자(2004)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우리의 욕구를 환경의 요구와 균형을 맞추고 현실적 가능성에 비추어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라 하였고 김용래(2000)는 개인과 환경사이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과정으로 개인의 요구와 갈등, 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정도라고 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역시 학교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학교의 규범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수진, 2015).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발

달은 물론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안영복, 1984). 이처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학교생활 전반적인 측면인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학교 규범, 학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다(김신경, 박민경, 2014; 조성희, 박소영, 2015).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학교 교육 체계는 학생들 간에 극도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적대적으로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사교육을 무분별하게 팽창시켰고, 교사와의 관계는 인간적으로 친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개인적으로도 안정감을 못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문제를 양성하고 있다. 박재산, 문재우(2006)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학교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와 폭력, 무단결석, 가출, 약물남용, 비행 등의 행동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서 학교생활 부적응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는 태어나서 겪는 가장 큰 격변기일 것이다. 새로운 친구, 친구들의 사춘기 성향으로 예민함, 교사의 무관심, 엄격해진 학교규칙, 갑자기 어려워지는 수업의 적응은 인생에서 처음 닥친 고비이자 과업일 것이다. 학교생활의 적응이 새내기 중학생의 가장 큰 과제이며 곳곳에서 발생하는 친구, 교사, 가정, 수업,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은 비행의 문제로 혹은 자신의 내부로 해를 끼치게 되어 청소년기 뿐 만아니라 성인까지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김수진, 2015).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중학교 1학년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학교라는 생활 장면에서 겪게 되는 좌절과 실패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좌절과 실패의 영향이 보다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어떤 청소년들은 경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비교적 빨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다른 영향을 받고 다른 회복 속도를 보이는 현상을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설명해주는 개념으로는 자아탄력성이 있다(김수진, 2015).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Luthar, 1991; Newman, 2005; Rutter, 1987). 더우기 자아탄력성 개념 안에 자기

통제와 자신감, 적응력 등의 요소들이 내포(임효진, 김재철, 2014)되어 있으므로 자아탄력성이 새내기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더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즉, 자아탄력적인 집단은 더욱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들을 사용하여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에 비해 보다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윤주, 2004). 더 나아가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조성희, 박소영, 2015).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김송화, 2011; 김수진, 2011, 송미령, 2011; 이명순, 2014; 이재성, 2012)는 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정지영(2011)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학교생활적응, 심리 사회적응 등의 적응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보았으며, 학교적응에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부모양육관련 환경적 요인보다도 심리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송미령, 2011; 이명순, 2014).

자아탄력성 이외에도, 학교생활의 적응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 연구(김현수, 오인수, 2011; 김형태, 2013; 이명훈, 2011)에서 부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관련(김유진, 2010; 이재성, 2012), 부모의 정서적 방임(송미령, 2011), 교사지지(이유신, 김한성, 2014), 사회적지지(심미영, 2014), 또래애착(문은식, 2015)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와, 공감능력과 자아정체감(문은식, 2015), 자아탄력성과 실패내성(박상희, 2009) 등 개인적인 심리적 요인과 학교적응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부적응의 보호요인으로 진로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계에서도 진로교육의 효과를 주시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진로성숙도(조연희, 2015),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임주영, 윤경자, 2013) 등이 개인의 심리적요인과 더불어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진로성숙도란 ‘발달 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Super(1951)의 진로 발달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금지현(2012)은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부모와 초등학생간의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으로 진로성숙도로 보고 하였다. 즉 학교적응이 힘든 개인적

인 원인을 명확한 꿈과 비전이 없다는데서 찾았다. 이처럼, 진로성숙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히는 연구(김은정, 2005; 김주희, 2010)들과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연구가 있다(금지현, 2012; 박은영, 2011). 이러한 결과들은 진로성숙도의 향상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진로성숙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진로발달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자아탄력성이 정의하는 새로운 환경과의 관계에서 여러 방면의 위험과 역경과 같은 맥락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적응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 김봉환(2010)은 자아탄력성에 관심을 가졌는데,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취약한 집단에 비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 수준 평균이 모두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그는 자아가 탄력적인 대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이 계획한 진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실제적인 진로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아가 경직된 학생들은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실제적인 진로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이다(심지연, 2015; 이유민, 2014). 임주영, 윤경자(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모든 하위변인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탄력성은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입증되었다. 이경선(2011)과 주정현(2011)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가족 건강성이나 부모지지 보다 자아탄력성이 크다고 말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세 변인 중 단순하게 두 변인의 관계를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자아탄력성과 진로개념,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보는 연구가 보고 되기 시작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최금란(2012) 연구,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권미정(2013)과 임우섭, 김용주(2015) 연구, 대학생의 생활적응을 연구한 김송화(2011)

등이 있다.

소수의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연구는 부모관련 변인과 학교적응과의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금지현, 2012; 김수진, 2011;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조연희, 2015)를 본 연구가 대부분이고, 스트레스 관련 변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김송화, 2011; 성순옥, 2014)가 일부 있고, 한편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기도 하였다(이유민, 2014). 그러나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진로성숙도와의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과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연구는 거의 없고 임우섭, 김용주(2015)가 유일하게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부모지지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입증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이란 세 변인의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였고,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성숙도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특히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환경인 중학교를 진학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있는, 제주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즉, 중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생들의 학교 적응은 후에 중학교 적응, 고등학교 적응 나아가 성인이 되어 사회의 건전한 적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연구대상을 2015년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제주시, 서귀포시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남녀별로 변인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수준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운영과 차별적인 상담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적응의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새롭고 낯선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발달단계의 탐색기(Super)에 진입하는 중학교 1학년생의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보아서 학교적응 측면에 있어서 다각적인 효과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중학교 1학년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가설 1. 중학교 1학년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중학교 1학년생의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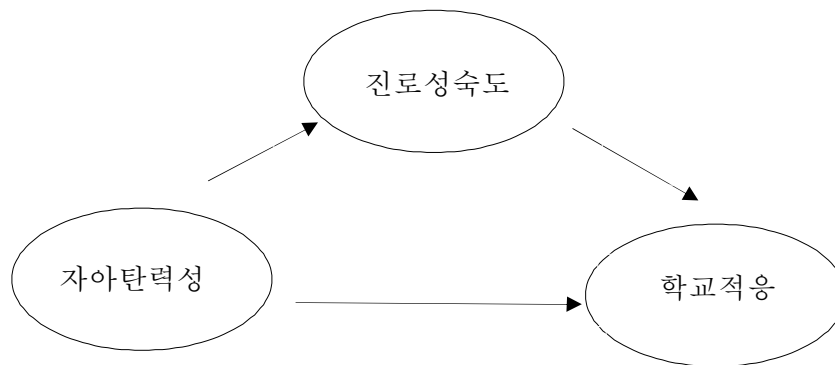
가설 2. 중학교 1학년생의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중학교 1학년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3. 중학교 1학년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살피는 동시에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있다. 주요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변인 간 인과적 관계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그림Ⅲ-1>과 같다. 즉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세워보았다.



<그림Ⅲ-1> 가설적 연구모형

4. 용어의 정의

가.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친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아통제 수준을 유연하게 변하게 하는 자아의 조절능력과 인지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처 있으면 자아통제를 강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상황의 요구가 사라지면 원래의 자아통제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뜻한다(Block & Block, 1980; 이명순, 2014 재인용). 즉 자아탄력성이란 다양한 상황의 요구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며, 개인 내적 혹은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란 Block과 Kremen (1996)의 연구들을 기초로 개발하고 유성경(2002)이 번역한 14개 문항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는 점수로 정의한다(이명순, 2014).

나.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란 ‘발달 개념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통일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는 진로성숙도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근거로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 따라 동일한 연령대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 내에서 차지하게 되는 상대적인 위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란 Crites(1973)의 연구에 기초,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CMI)의 척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기학과 한종철(1997)에서 제작한 진로태도 성숙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는 점수로 정의하였다. 진로성숙도는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 5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이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 환경을 변하게 하는 동시에, 학교 환경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자신을 변화, 적

응하고, 학교환경과 학생 개인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해가는 과정이다(박지현, 2003). 즉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딪치게 되는 여러 방면의 교육적인 환경을 자신이 바라는 바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수용되는 과정이라는 안영복(1984)의 정의와도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이란 김용래(1993)가 개발한 ‘학교적응척도’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는데 학교생활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환경적응, 학교수업적응의 5가지영역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가.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1) 자아탄력성의 개념

탄력성(resilience 또는 resiliency)이란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이해리, 조한익, 2005). 장휘숙(2009)은 탄력성을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변화하는 환경, 혹은 하루하루의 생활압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기체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탄력성은 흔히 장애 및 난관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험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있는 유능감을 의미한다. 셋째, 탄력성은 충격적인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뜻한다(Masten, Best, & Garmezy, 1990; Kirby & Fraser, 2000; 강문희, 2007; 김유진, 2010 재인용).

발달 정신 병리학 입장에서 Garmezy(1993)는 탄력성을 위험 상태가 높거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일 때 혹은 그에 뒤따른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적응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고 그 외의 발달 정신 병리학자들 역시 더 이른 단계의 발달 및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한 발달이나 구조로 통합된다는 발달의 체제화 조망 측면에서 탄력성을 개인의 변화하는 특성으로 보았기에, 지원된 환경 맥락적 측면에서 유전적, 선천적 요인들과 경험적,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시간에 걸쳐서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이 발달하므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과정으로서 탄력성연구는 험난한 역경이나 충격적인 외상이 있을지라도 개인이 유능하게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를 주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탄력적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예방적, 치료적 중재전략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장휘숙, 2001).

3세의 뉴질랜드 아동을 성인 초기 까지 탄력성을 연구한 Caspi와 Silva(1995)는 과통제 유형에서 탄력적 유형으로 변화하거나 그 반대로 변화하는 개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냄으로써 개인의 성격유형이 변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탄력성의 변화가능성은 Lerner(1995)의 발달적 맥락주의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발달은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그 결과가 적응적인가 아닌가는 개인의 특성에 기인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이 사회적 맥락 사이에서 일치하거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양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즉, 성공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단계 단계마다 변화하므로 성공적 적응을 이룰 수 있는 개인의 탄력성도 매 단계마다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탄력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근거들은 탄력성을 연구한 결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즉, Egeland(1993) 등의 종단연구에서도 가난 혹은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새로운 상황이 변함에 따라 예를 들면 입양이나 양육적인 교사와의 만남 등 상황이 좋아지면 그들의 탄력성이 많이 좋아지는 한편,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안 좋아지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개인의 탄력성은 그 당시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특성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탄력성은 정적인 특성이 아니고 극심한 스트레스의 기간이나 전 생애 동안 발달적 변화시기동안 나타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탄력적인 아동도 다른 시점에서는 탄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장휘숙, 1999 재인용).

Block과 Kremen(1996)은 탄력성(resilience)에 ego를 붙여 자아탄력성(ego - resilience)이라고 이름 지었다. 자아탄력성을 하나의 성격유형이라고 규정내리고 적절한 자아통제를 이룰 수 있을 때 탄력적이라고 주장하였다. Block이 말하기를, 자아탄력성은 상황이 따라 변화하는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좌절적 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하나의 연속체로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연속체로 한쪽 끝에 있는 개인을 자아-탄력적(ego-resilience), 그 반대편 끝에 있는 개인을 자아-연약한(ego-brittle)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아통제도 자아탄력성과 같은 형태로 연속체라 하여 한 쪽 끝에 과통제가 있고 다른 반대쪽 끝에는 저통제가 존재함을 설명했다. 과통제는 충동의 과도한 억제, 자기만족의 지연, 행동과 정서적인 억제, 환경의 방해가 있을 때 자신의 의견 철회를 의미하는 반면, 저통제는 충동조절이 불가능하고 만족지연이 어려워 직접적인 감정 혹은 동기를 즉각적으로 표현함 등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관계에서 자아-연약한 사람들은 적절하고 유연하게 자아통제를 하지 못해서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저통제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자주 부정적 정서에 휩싸이고 미분화된 행동 따위를 보이는 등 성공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 반면에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민

감하게 불안에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에 긍정적, 개방적 정서를 느끼며 중간 수준의 통제 수준을 유지한다(장휘숙, 2001 재인용).

한편, 'Ego-resilience'을 자아탄력성(고종근, 2006; 이선정, 2007), 적응유연성(박인실, 2006), 회복력(김혜성, 1997; 박연환, 2002), 극복력(심인옥, 2006; 한미라, 2004), 복원력(전미영, 1996)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쓰이고 있으며 이렇듯 통합되지 않고 다양한 자아탄력성의 용어 표현과 정의는 연구의 측정과 결과와도 관련되기에 지속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김봉환, 2010). 이처럼 자아탄력성의 정의가 여러 가지이고 용어의 합의가 힘든 것은 자아탄력성이 다양한 요인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 있으며, 인간의 긍정적인 능력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홍은숙, 2006).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라 정의를 내리는 한편, 고정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변화하는 특성으로 보고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실천적 방향으로 자아탄력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결국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적 외적으로 놓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스스로 상황을 자신있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낙관성, 생산성 있고 자율적인 활동력,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 및 능숙한 자기 표현력,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력을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다(Klohen, 1996; 주정현, 2011 재인용).

2) 자아탄력성의 관련변인

자아탄력성은 앞에서 거론했듯이 개인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기에, 우리가 처한 여러 환경의 적응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무엇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수준이 높고 낮음이 무엇으로 결정되는지를 아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건강상태 등이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 유형, 부모 애착, 부모와의 의사소통개념 등의 가정 관련 변인과 학교수준변인이 있다.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변인 가운데 성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지금까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남아가 여아 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약해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낮다(박인진, 이은미, 2002; 이완정, 2002)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연구(황여정, 김경근, 2014),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탄력성 수준이 더 높게 나왔지만,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의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도 있다(성순옥, 2013). 아동의 성별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도(Tiet, Bird, Davies, Hoven, Cohen, Jensen, & Goodman, 1998; 이명순, 2014 재인용) 나타나 자아탄력성의 성별에 관련된 연구는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김모연(2016)은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서 자아탄력성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사회자본 및 자아탄력성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니 남학생의 경우만 부모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부모지지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황여정, 김경근(2014)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 변인과 학교수준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 변인 가운데 성별, 건강상태, 학교교육 효용성에 대한 인식, 봉사활동 참가, 부모학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교사, 친구, 이웃과 관계가 친밀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탄력성은 대부분 개인 수준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학교수준에서 결정되는 비중은 적었다. 단지 학교수준 변인 중에는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 관계가 돈독하고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날 것으로 예견했다. 또한, 객관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 그 자체로는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2004)은 가정의 위험요소가 자아탄력성,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의하면, 부정적인 가정환경은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부모애착과 또래 애착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유의미 있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아탄력성과 가정안팎의 지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뒷받침 했다. 이처럼,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가정 관련 변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부모애착과 부모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측면에서의 안정적인 가정환경에 대한 것이다. 즉,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방식과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부모와 아동의 친밀감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유진, 2010; 신태섭, 이현주, 권희경, 2015; 이명순, 2014; 천은정, 2014).

이처럼 자아탄력성과 가정 관련 변인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그 부정적 변인을 보호하는 변인으로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보는 연구들이 많다.

3) 자아탄력성 선행연구

자아탄력성이라는 연구의 중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장애를 진단, 치료하는데 집중되던 관점과는 달리, 개인의 적응력, 강점, 건강하고 발전적인 성장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긍정 심리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Sheldon & King, 2001) 비롯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은 청소년 문제라는 병리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관점에서 보다 예방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서서히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최경자, 2007). 자아탄력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1970년대 위험집단 아동의 정신 병리학적 이론에 빠져있던 정신과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여러 위험요소에 노출된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했는데, 연구 대상 아동들이 심각한 문제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발달 단계상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탄력성’이라 말하면서 다양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김상희, 2010; 민동일, 2007; 이정선, 2011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박현선(1995)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0년대에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다. 일반 청소년과 빈곤청소년, 이혼가족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자아탄력성 척도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새터민, 북한이탈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박병기, 이선영, 송정화, 2010)을 위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거나, 학교적응 혹은 사회의 적응에 자아탄력성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탐색하고 있다(김봉환, 2010).

신태섭, 이현주, 권희경(2015)은 간섭을 잘하고 과잉기대하고 비 일관적인 부정적 양육방식이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이 매개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연구결과를 밝히면서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형모(2001)는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자아통제를 적절히 할 수 있으며, 외향적, 친화적이며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가족 사회적 환경이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을 가져오거나 안정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좌절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명순(2014)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역기능일지라도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면 학교 부적응을 감소,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학대, 방임 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온 연구결과들이 많다(강정혜, 2009; 김수진, 2011; 김유진, 2010; 송미령, 2011; 송진영, 2015; 이윤주, 2004; 이재성, 2012; 조은정, 2013). 그리고 황은혜(2013)는 중학생의 부정적인 가정환경 요인이 또래관계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부정적 부모양육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또래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은주(2007)는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아동의 내현적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자아통제감과 탄력성을 보았다.

이러한 자아탄력성 관련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부정적인 부모관계,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할 때 부적영향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절효과도 나타난 연구가 있다. 이는 곧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나 역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행연구이다.

나. 진로성숙도

1)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의 개념

Super는 직업 선택 과정은 전체 발달과정의 일부이고 인간의 발달 과정 혹은 발달 단계에 들어맞는 과정으로서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쳐 발전해 간다고 하였다. 직업선택을 단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선택을 위한 결정들이 생애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았다(이희영, 2003).

Super(1955)은 다섯 단계로 진로의 단계를, 출생에서 14세까지를 성장기, 15세에서 24세까지를 탐색기, 25세에서 44세까지를 확립기, 45세에서 64세까지를 유

지기, 그리고 65세 이상을 쇠퇴기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Super는 두 번째 탐색기 단계가 더 중요한 과정으로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요한 진로발달과업으로 보았다. 본 연구대상은 연령상 Super의 구분에서는 성장기로서 탐색기로 넘어가기 바로 전 시점에 해당하는데, 성장기에서는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에 대해 동일시함으로써 수행한다. 자신의 욕구가 우선하고 환상이 지배적이나 사회참여와 현실검증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의 흥미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점차 중요시하게 된다. 그 단계에서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면 다음 단계는 탐색기으로써, 학교의 생활, 여가시간, 시간제 일 등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직업적 탐색을 시도하게 되는 기회가 많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진초등교육과정과 확연히 분리된 중학교 진학시기로서 다양한 활동과 직업적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 탐색기로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탐색기의 첫 단계인 결정화기 역시 성장기에 습득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즉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개인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호할 것인지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선호한 직업을 선택하고 행동을 취하는 다음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진로상담이론, 김봉환 외, 2010). 그래서, 성장기에서 탐색기로 넘어가는 이시기는 진로선택의 출발점이자 첫 단추이어서 개인의 진로 의사 결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Super는 진로를 성장기에서 쇠퇴기라고 명명된 일련의 단계를 거쳐 전개되고,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개인은 자신과 맞는 진로유형에 따른 일련의 결정을 하게 된다고 피력하였다. 이때, 현명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과 태도가 구비되어야 하며, 이러한 태도와 능력은 각 진로발달 단계에서 요구하는 직업적 발달 과업을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직업적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르게 말하면 진로선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진로성숙도란 개념은 이러한 질문과 연관 있다(이희영, 2003).

진로성숙도는 Super(1957)가 그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였는데 자기개념, 심리학과 사회학, 생애적 발달 과업 같은 여러 변인들이 합쳐진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후 진로와 연관된 프로그램과 진로 상담을 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다(Herr & Cramer, 1984). 진로성숙도는 진로성숙, 진로태도성숙도, 직업성

속도, 진로인식 등의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진로성숙도의 정의를, Super(1955)는 탐색기로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진로발달의 수준과 관련하여 한 개인이 다다른 위치라고 했고,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등을 구성하였다. Crites(1978)는 진로성숙도를 같은 연령층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직업의 준비 정도라고 하였고, 김충기(1983)는 개인에게 맞는 직업적 소양과 가치, 지식 등을 습득해서 자신의 직업적인 적성에 들어맞는 행동과 그에 걸맞는 판단력을 양산하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 보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92) 역시 비슷한 정의를 내리는데 진로성숙도를 연속적인 발달개념으로 보되, 부분적으로는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수행 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로 보고 있고, 김봉환 외(2010)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의 계획과 진로의 선택을 통합하고 조정해 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능력을 가지게 되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김강호, 2009). 연령에 따른 성장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어느 정도 비례하여 커지는데 초등학교 3학년보다 6학년이, 그리고 중학생이 직업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alls, 2000). 유준상(2013)은 전반적으로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간의 관계에서 초등학생, 대학생 보다 중등학생에서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와 관련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진로성숙이 향상되었다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 역시 진로선택과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고등학교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생들 또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느 전공 분야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가 중, 고등학교 단계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2) 진로성숙도와 관련변인

지금까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그들을 둘러싼 환경,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가정 혹은 학교와 관련된 변인들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진로성숙의

보호요인으로 자아개념과 연속선상에 있는 변인들, 즉 자아 존중감, 자기통제, 자기신뢰를 변인으로 연구했으며(최윤미, 2011), 특히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의 관계연구(이경선, 2011; 최경자, 2007)가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새롭게 개인적 특성인 진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서우석, 2015; 이유민, 2014), 전주연(2014)은 낙관성, 희망, 자아탄력성, 자기 효능감을 포괄하는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보았다.

유준상(2013)은 진로성숙과 관련지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아 정체감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진로성숙과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심리적 변인 전체와 진로성숙 전체와의 평균 효과크기는 0.44로 높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체계화된 진로교육에서 심리적 변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진로성숙을 향상시켜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학교생활적응(소연희, 2011), 만족도(김수정, 2013)와 관계적 요인(오정아, 2014)이 있고, 부모 방임(송미령, 2005), 어머니 양육(조연희, 2015), 부모양육(김예수, 2009) 등 가정 관련변인을 다룬 연구가 있다. 부모 양육태도는 일관되게 자녀의 진로성숙도와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반면에, 부모의 교육적 관여(소연희, 2011)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었다(서우석, 2015). 금지현의 연구(2012)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주 미약하게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남녀 간 차이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남자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기도 하지만(김경령, 2001), 대체로 여자의 진로성숙도가 남자들 보다 높다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룬다(송병국, 전주연, 2014; 이기학, 한종철, 1998). 김현옥(1989)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 성숙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결정성과 계획성에서 여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영미(2009)연구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진로성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성숙도 수준에는 남녀의 차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유순화, 2006; 이현주, 2013).

한편, 독서(류보라, 2014), 봉사활동(김기수, 2009), 동아리활동(양영석, 김명숙, 2014), 아르바이트경험(전방연, 2003) 등 활동과 관련 체험과 진로성숙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활동과 관련 체험들이 만족스럽고 의미 있다고 지각한 학생들이일 수록 진로성숙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활동이나 경험의 자체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체험만 속도가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종성, 이병훈(2010)의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경험이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온 반면, 진로관련수업이 진로성숙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은정, 장윤옥(2008)은 진로성숙도에 개인, 가족, 학교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했는데, 개인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자기 효능감이 있고, 가족 변인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 부모지지, 형제지지,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가족의 가치지향성을 봤고 학교변인으로는 친구와의 진로에 대한 대화,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보았다. 개인관련 변인 중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대부분의 개인관련 변인들은 진로성숙도의 확신성과 준비성에 대한 설명력은 컸지만 목적성과 독립성에 대한 설명력은 아주 미약했다. 가족 관련변인과 학교 관련변인은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준비성에 대한 설명력은 높았지만 결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설명력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인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개인 관련변인, 가족 관련변인, 학교 관련변인의 순으로 진로성숙도의 준비성에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개인적 특성인 자아관련 개념의 중요성을 거론한 연구가 많았다. 이는 Super(1996)의 자아개념이론에 부합되는 결과였다. Super는 진로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아개념의 발달 실현이라고 보았는데 개인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현실적인 타협이 이뤄지고 자아개념은 본인의 선천적 능력과 경험이나 역할의 수행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의 상호작용이 반복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이런 과정이 평생에 걸쳐 계속 이뤄진다고 보았다(이강모, 2015). 본 연구 역시 자아개념중 하나인 자아탄력성에 주목하였다.

다. 학교적응

1) 학교적응의 개념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영위해 가는 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혹은 그 사회의 규칙과 질서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응해 나감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적응은 하나의 과정으로써 유기체 자신과 그 환경 사이

에 조화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맞추어 가거나 환경을 변하게 하는 과정이다. 심리학적으로는 개체요구의 해소과정이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장애를 극복하려 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적응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 하나는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는 소극적인 적응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위 환경변인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적응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균형과 조화를 잃게 되면 긴장, 불만,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Lazarus(1976)는 부적응 기준으로 심리적 불편감, 인지적 비능률성,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행동과 신체적 기능의 장애를 거론하면서, 이러한 욕구의 불만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부적응 행동을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생활 전반에서의 갈등에 대한 적절한 적응양식을 찾아내지 못하면 문제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김용래, 2003).

특히 현대사회처럼 지식, 정보, 가치관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학교라고 할 때,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혼란스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고 학교라는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올라 갈 것이다. 한편, 이들이 학교에서 만족할 정도로 자신의 요구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 불만, 절망, 무능력, 자포자기, 불안, 무관심 등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비행행위가 나타날 수 있으며, 반면에 학교환경을 수용하거나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적응할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각하는 학교적응도 높아질 것이다.

김용래(2000)는 학교적응을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과정과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지적, 정의적, 심리적 신체적 발달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을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의 모든 여건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안용복(1984) 역시, 학교적응을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기 때문에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학업성적이 올라가며 바람직한 행동특성

구성되며 개인의 발달은 물론 나아가서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민영순(1995)은 학교적응을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칙,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로운 적응적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을 보면, 이상필(1990)은 담임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관계로 보았으며, 이영재(1989)는 취미, 특기, 학업관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행정에 대한 태도,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였다. 임정순(1993)과 유윤희(1994)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개인과 학교환경 사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정,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로 보았으며, 김용래(1993)의 연구에서 환경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의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학교적응 척도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적응과 관련 변인

학교적응은 단순히 학교 성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학교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보고 그 사회 속에서 역동적으로 동화되어 상호작용 하는 정도로 파악해야 한다(한영숙, 2005). 즉, 청소년기에 있어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학교생활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과 더불어 과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교의 의미에서, 학습방법이나 학습정도에 따른 결과적인 성취도는 학교적응과 바로 연결되는 필수적인 요인이긴 하다(문은식, 이충희, 2002).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은 교실활동에 무관심하고 우울하고 장기적인 결석, 잦은 지각,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까지 보이는 경향을 보이며, 부모나 교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갈등을 느낌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한편 남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일탈행동은 학업성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연문희, 강진령, 2002), 학업상태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상관관계가 학교 적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학업상태는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적 요소와 청소년

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기에, 현재의 학업상태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학교 안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조화롭고 성적도 올라가고 이에 바람직한 행동적 특성이 형성되면서 개인의 성장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노성호, 2005). 특히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가 친화적이며 교사가 학생을 신뢰하며 격려하는 허용적 분위기일 때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학업성취 역시 높았다(이명선, 2014).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적응 관련 연구는 주로 학업성취, 교사와의 관계, 또래집단의 지지에 따른 학교적응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과 학교적응간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변인들 간의 일대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박은주, 심우엽, 2005). 그리고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타인들과의 대인관계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이나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특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결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 심리적 특성 중에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 두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라.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란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 사이에 한 학기를 지정하여 정기적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학습하는 학기를 말한다. 2013년 42개교로 시범운영 되다가 2016년도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렇게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자유학기제 전면적 도입에 대한 공감적 인식이 학부모, 교사,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었다고 생각하는 듯하고, 정부는 자유학기제 실시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전면적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도 상당한 정도로 갖춰졌다고 판단한 듯하다(제민일보, 2016).

시범학교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시범 운영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인성, 협동 능력 등 미래지향 역량도 사전과 사후 검사결과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학기제에 집중적인 진로수업·체험을 실시하여 초등학교(진로인식) - 중학교(진로탐색) - 고등학교(진로설계 및 준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할 2015년도 시점, 제주도 전체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고 남녀 별 구분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Ⅱ-1 > 제주도 중학교 1학년 학생 수(2015. 4. 1 기준 제주도 교육청 자료)

제 주 시 30 개교 5004명(77.0%)		서 귀 포 시 15개교 1497명(23.0%)	
남	여	남	여
2719	2285	801	696
(54.3%)	(45.7%)	(53.5%)	(46.5%)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연구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제주도 교육청 자료실)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는 가장 큰 특징은 평가방식을 기존과 달리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동안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보이는 발달 정도 및 특성을 서술형으로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평가는 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 영역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와 태도, 참여도 등을 반영한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학생들 간의 경쟁을 야기하는 상대적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들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은 크게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성된

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기본 교과 수업으로 하는 ‘공통과정’은, 학교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여서 기존 교과 수업 시수의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많은 학교들이 여러 교과 간의 융합 수업을 시도하거나, 실험, 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부분은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예술·체육 활동’ 네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 ‘자율과정’이다. 교육과정에서 ‘자율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3분의 1정도의 비중으로 주당 10~12시간 정도이다.

학생 설문조사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13년 9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하였고(동시 참여 수: 7,457명),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는 한 차례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만족도는 교사가 가장 높고 그다음 학생,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9월 조사에서는 3.34였으나 12월 조사에서는 3.72로 나타나 9월에 비해 0.38만큼 향상되었다. 특히 교사의 만족도가 3.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학부모의 만족도는 3.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첫째, 학교생활에 시험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이 즐거워져 만족도가 올라갔다.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해) 자유스러워진, 편안한 학교가 되었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싸우고 부수고 했던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조금 못했을지 몰라도 긴장을 풀고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1학년 남학생들한테서 역력하게 볼 수 있었어요.”

(F-1중학교, 교장)

이처럼 학생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학기 초기에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으나,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1학년 학생의 표현 능력이 보통의 2, 3학

년 학생들보다 낮다고 교사들은 평가했다.

둘째로, 친구관계나 교사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건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 구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협동학습이 많아지는 형태로 수업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친구들과 협동하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장 교사들 역시 왕따,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교사와의 대화 기회가 확대되어 전과 달리 학생과 교사사이의 친밀감이 증가했다고 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업태도와 집중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교사들 측면에서 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했다는 대답이 많았다. 학생들의 새로운 가능성과 장점 발견하게 되고 또한 사각 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 자신의 수업의 질이 높아졌고,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토대로 한 수업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연구학교로서의 행정 업무 부담, 평가 및 생활기록부 입력에 대한 업무 부담 등으로 힘들어 했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수업 시수 조정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교 밖 체험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로 많은 부담을 느꼈다.

학부모들 측면에서 볼 때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력이 낮아지거나 입시 경쟁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한편, 여전히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직까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보고서를 요약해 보면, 학생들은 시험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이 즐거워졌고, 친구와의 과도한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친구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에서 부적응과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는 한편,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새로운 가능성과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관심 밖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고 보고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활동 등의 시간을 늘리고, 질적으로 높아진 활동내용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학부모의 불만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는 과

제가 놓여 있다.

더욱이 최근 언론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제주도 고입선발부터 적용될 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안의 골격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독서·인성·동아리 활동 등이 고입내신 성적에 반영된다고 보도되었다(제민일보, 2016).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더욱더 자유학기제 연구결과들에서 보고된 불만을 해소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동아리활동 및 진로, 교육 활동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2. 변수간의 관계

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Block & Block(1980)은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취하여 융통성 있게 해결하고, 성격이 덜 불안해하고 안정적인 한편, 자신감이 있어 학교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유연한 적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정지영(2011)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가정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 심리사회 적응 등의 적응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구자은(2000)은 자아탄력성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의식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개인의 특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짐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수진, 김가혜, 2015)

먼저 Garnezy(1981)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교사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친절하다는 평판을 들으며 주위 어른이나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다. 대인관계에서 민감하고 협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자기존중감과 효능감이 높기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아상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Klohnen, 1996; Rutter, 1987; 박아람,

2014 재인용). 학업에 있어서도 지적인 성취정도가 높았으며, 성적이 우수한 아이 가운데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을 꺼내서 활용하는 능력이 더 높고 집이나 학교 등에서 신뢰와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Hilgram & Palti, 1993). 이렇듯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 수월하게 적응을 잘 하는 반면에,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적 환경의 급작스런 변화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스트레스가 증가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신체화 증상까지 호소하는 등 학교적응에 문제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적응에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신윤자, 2005)

이러한 아동기의 자아탄력적인 아이들의 특징이 청소년기에서도 비슷한 특징으로 이어진다. Robin 등(1996)은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한 종단적 연구 결과, 자아탄력적인 청소년들은 품위가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언어 표현력이 높아 자기주장을 잘 피력하고 열정이 넘치며 아는 것 또한 많았다. 그들은 불안정해하지 않고 자신감이 높았으며 생활에서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적응하는 청소년들이었다(강창실, 2008)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고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학교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적응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예승, 2004). 이외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고(채호숙, 2008; 김윤희, 황순택, 2003; 송미령, 2005; 성순옥, 2013), 광민경, 서보준(2011)은,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의 하위요소인 교우관계와 규칙준수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들이 생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싸워 나감으로써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능력이자 태도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자아탄력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지지해주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도현, 2012).

나.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보고되었다(금지현, 2012; 박은영, 2011; 조연희, 2015).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거꾸로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진로성숙도도 높게 나타나거나 학교생활 적응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조연희, 2011; 오정아, 2014; 정주원, 2014). 이는 연구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인과관계가 다르게 설정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자는 진로성숙도의 향상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학생들이 겪는 부적응과 탈선, 우울증, 그리고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예방과 치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로교육을 통해 중학교에서의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였고, 협력학습으로 또래관계 좋아졌다는 보고서와 같이(자유학기제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2013) 진로교육을 통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의 상승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 적응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꿈, 비전이 없다고 한다(금지현, 2012).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학생은 쉽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나 가정에서는 학생들에게 확고한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조연희(201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미했고,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자율 양육태도와 교우 관계 간 관계에서는 유일하게 진로성숙도가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진로성숙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금지현(2012)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는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성이 중요하며 이는 진로 성숙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진로성숙도는 부모 관련 변인보다 학교생활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부모애착, 부모 경제적 지위보다 진로성숙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나왔다. 한편, 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동일수록 학교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박은영(2011)의 연구에서는 직업성숙도 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이 또래와의 애착이나 가정의 소득수준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영(2011)은 직업 성숙도가 높은 아동은 긍정적으로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현 상황마다 성실하게 대처해주는 요인이 되며 현재의 힘든 환경이나 주변에서 유혹하는 비행과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의 원천이 됨을 강조하면서, 어릴 때부터 일관성 있게 자신의 진로에 따른 성장과정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송화(2011)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 준비하고 결정하는 대학생 시기에 진로 성숙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과 수행정도가 높아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진로성숙도는 대학생활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입증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마이스터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생활만족도, 진로성숙도, 성적순으로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보현, 2013)와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임우섭, 김용주, 2015).

이처럼, 진로성숙도는 학교적응에 다른 요인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청소년들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목표의식이 생기면,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학교의 모든 방면인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학교 생활 전반에서 유연하게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 부모양육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록 사회적 적응의 출발인 학교생활을 활기차게 적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학교부적응, 학교비행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 진학하고 1년이 지난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

Block(1980)은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자아통제를 변동시키는 역동적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며, 변화하는 환경이나 있음직한 상황 속의 여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이라 정의하였다. Rutter(1990)은 자아탄력성에 대해 개인의 자아통제를 변동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이라고 하였고 Klohnen(1996)은 청소년들이 개인의 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에 대한 풍

부한 적응 능력이며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이라고 하였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위험하고 역경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고(Masten, Best, & Garmezy, 1991),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험과 역경을 적극적으로 겪어내고 적응하는 자아탄력성의 적응 능력 또한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진로 발달 과정에서의 건강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성숙을 포함할 것이라 추정된다. 그리고 진로성숙도는 다양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송병민, 1991; 유준상, 2013; 이기학, 1997; 장석민, 임두순)고 하였다.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직접 뒷받침하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 최경자(2007)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지각 수준과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사회적지지의 높은 지각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중요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해야 하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은 중요한 적응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2009)는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경선과 남현우(2011)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또한, 오석구(2005)는 개인의 진로에 대해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진학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체계인 진로의식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 즉,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하여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상관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안세영(2008)의 연구와 전문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진로성숙도가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학교생활 적응도도 높게 나타났다는 이혜숙(2008)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와 대학생활적응능력이 높아진다고(김송화, 2011)는 연구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이정현, 2014)가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 긍정심리자본 중 하나로 자아탄력성을 연구했는데 진로준비행동에는 연관이 없고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전주연, 2014)는 연구에서 보듯이 진로성숙도와 자아탄력성의 연관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제주도의 중학교 1학년생은 제주시 30개교에 5,004명이 재학 중이고, 서귀포시 15개교에 1,497명으로 총 45개교의 6,501명이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 중1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일한 비율로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수준을 보고자 표집계획을 세웠다. 즉, 알아보고자 한 변인이 환경적인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개인 내적, 심리적 변인이기에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임의 표집을 하였다. 전체학생 중 400명(16.25%)을 표본으로 설정하였고, 제주시에서 30개교 가운데 표집된 한 개의 중학교 1학년 210명(52.5%)과, 서귀포에서 제주시와 비중이 비슷한 학생 수를 표집하기 위해 두개의 중학교에서 190명(47.5%)을 표집 하였다. 해당학교의 교사에게 설문지의 대한 목적 및 의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포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자유학기제를 마친 학기를 마친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7일에서 25일까지 약 3주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을 척도로 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자신이 직접 체크하는 보고식 설문조사로 20~30분 소요되었다. 설문지 수거 한 다음에는 설문지 중 정보를 누락하거나 응답이 성의 없이 작성한 36부를 제외하고 364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는데, 남녀의 비율은 남 181부(49.7%)와 여 183부(50.3%)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자아탄력성척도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척도(Ego-Resiliency Scale : ERS)를 유성경(2002)이 번역한 것을 채호숙(2008)이 수

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탄력성 정도를 직접 보고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하위 항목은 대인관계, 활력성과 감정통제, 호기심 그리고 낙관성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는 친구가 힘든 일을 당하면 도와주고,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며 존중해주고, 친구가 고민이 있으면 내 일처럼 같이 고민하는 등 친구들에게 인상을 좋게 보이는 측면이다. 활력성은 친구들을 보면 먼저 친절하게 말을 걸고, 우울하기 보다는 즐거울 때가 많으며,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앞장서서 한다는 측면이다. 감정통제는 친구와 싸웠지만 다시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감정을 조절하여 화난 이유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본다는 측면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반에 올라가면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친구에게 궁금한 것이 많아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기도 하는 등 사람에 대한 흥미가 많고, 또한 새로운 것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낙관성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곧 잘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하고, 친구의 단점 보다 장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무엇이 조금 잘못되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는 측면이다.

한편, 이 척도는 대인관계 영역 3문항, 활력성 영역 2문항, 감정통제 영역 2문항, 호기심 영역 5문항, 낙관성 영역 2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문항은 없다. 응답방식은 1점인 '매우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수의 범위는 14~70점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수준이라 함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에 개인의 통제수준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자가 보고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76이고, 유성경(2002)의 연구에서는 .67이고 본 연구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표Ⅲ-1 >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 위 요 인	문 항 수	하 위 문 항
대 인 관 계	3	1, 4, 9
활 력 성	2	2, 6
감 정 통 제	2	10, 13
낙 관 성	2	12, 14
호 기 심	5	3, 5, 7, 8, 11
계	14	Cronbach's α = 0.87

나. 진로 성숙도 척도

진로성숙이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파악과 직업세계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진로를 인식하고 계획하며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각 발달단계의 발달 과업의 수행하는 정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 및 상대적인 직업 준비 정도라고 할 수 있다(남궁정, 2003).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처음 만든 진로성숙도 척도를 가져와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결정성, 준비성,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정성은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 정도,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직업 및 진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가를 나타는 차원을 의미한다. 목적성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 자신의 욕구를 현실과 얼마만큼 타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진로를 선택할 때 경제적인 보상, 승진기회, 장래 전망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 보다는 일을 통한 자기 개발, 성취감 등과 같은 측면을 중요하다고 보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확신성은 어느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얼마나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개인적 믿음과 확신을 나타내는 차원을 의미한다. 준비성은 진로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진로에 대한 사전적 이해, 준비 및 계획하는 정도,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수준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진로 정보 수집능력,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차원을 의미한다.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소신있게 결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자신의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남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지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한편, 진로성숙도의 문항구성은 결정성영역 10문항, 준비성 10문항, 독립성 9문항, 목적성 8문항, 확신성 10문항의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1점인 '결코 그렇지 않다' 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기학, 한종철(1997)이 보고한 검사의 신뢰도는 결정성 .88, 준비성 .76, 독립성 .75, 목적성 .75, 확신성 .75 였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이경선, 남현우(2011)연구에서도 .97로 높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표Ⅲ-2>와 같이 결정성.83 준비성 .79 독립성 .75 목적성 .81 확신성 .77이고, 전체 Cronbach's α는 .91로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표Ⅲ-2 >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 위 요 인	문항수	하 위 문 항	Cronbach's α
결정성	10	1,6*,11,16*,21*,26*,31,36,41*,45*	0.83
준비성	10	4, 9, 14*,19, 24, 29, 34, 39, 43, 47	0.79
독립성	9	5*,10*,15*,20, 25*,30, 35, 40, 44*	0.75
목적성	8	2*,7*,12*,17*,22*,27*,32*,37*	0.81
확신성	10	3*,8*,13, 18*,23, 28*,33, 38*,42, 46*	0.77
계	47		0.91

*역문항

다. 학교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김용래(1993)가 개발한 ‘학교적응척도’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적응검사의 하위요인에 따른 문항구성과 Cronbach’s α 는 <표Ⅲ-3>와 같다. 신뢰도 계수는 이미현(2005)의 연구에서 .92였으며, 김은숙(2007)의 연구에서는 .89로 측정되었고 김기수(2009)에서는 .88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로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다.

학교적응 척도는 학교생활적응 7문항, 학교친구적응 5문항, 학교수업적응 5문항, 학교환경적응 4문항, 그리고 학교교사적응 4문항의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용래, 2000).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주어져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생들의 학교 안의 규칙과 질서, 여러 행사, 학교 시설물의 활용, 수업 준비물 지참, 교내 게시물과 홍보의 확인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면서 학생 각자에게 야기되는 스트레스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친구적응은 학교의 친구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친구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정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수업적응은 학교 수업상황 시 일어나는 각종 상황들을 바르게 인지, 수용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또한 조절하여, 여타의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정도를 말한다. 학교환경적응은 학교환경을 스스로 올바르게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또한 학교환경에서 야기되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처해 가는 정도를 말한다. 학교교사적응은 학교의 교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자신의 요구를 조절하여 교사에게 주장하고,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여타의 문제들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Ⅲ-3 >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 위 요 인	문 항 수	하 위 문 항	Cronbach's α
학교생활적응	7	1, 2, 3, 4, 5, 6, 8	0.85
학교교사적응	4	17, 18, 19, 20	0.87
학교환경적응	4	7, 9, 10, 11	0.84
학교친구적응	5	12, 13, 14, 15, 16	0.75
학교수업적응	5	21, 22, 23, 24, 25	0.85
계	25		0.94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진로성숙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셋째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의 세 변인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려고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학교 1학년생의 진로성숙도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3단계 분석 절차에 따라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 변인이 매개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단순회귀

분석)이 유의하여야 하고 또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단순회귀분석)이 유의하였을 때 분석가능하고,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계수 값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산출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회귀계수 값보다 크게 나타날 때 매개 효과가 검증된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

가. 자아탄력성의 수준

중학교 1학년생의 자아탄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해서, 대상들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결과가 아래 <표IV-1>와 같다.

<표IV-1>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 N=364

변 인	하 위 요 인	M	SD
자아탄력성	낙관성	3.40	0.85
	대인관계	3.72	0.75
	활력성	3.69	0.76
	감정통제	3.40	0.77
	호기심	3.57	0.76
	전체	3.57	0.60

<표IV-1>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의 전체 문항 평균은 3.57로 5점 리커트 척도인 중간점수보다 높았다. 이는 중학교 1학년생들의 자아탄력성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M=3.72), 활력성(M=3.69), 호기심(M=3.57), 낙관성(M=3.4), 감정통제(M=3.4)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은 높게 지각하는 반면, 낙관성, 감정통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진로성숙도의 수준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IV-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IV-2>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 N=364

변 인	하 위 요 인	M	SD
진로성숙도	결정성	3.34	0.73
	목적성	3.26	0.71
	독립성	3.75	0.57
	확신성	3.33	0.63
	준비성	3.75	0.57
	전체	3.43	0.48

<표IV-2>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생들의 진로성숙도는 전체 평균은 3.43으로 중간점수보다 높아 진로성숙도 수준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 평균도 3.26에서부터 3.75까지 분포를 보였는데,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독립성(M= 3.75)과 준비성(M=3.7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를 진학하고 자유학기제를 마친 시점에서,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려는 독립적인 성향이 높고 또한 진로에 대한 폭넓은 관심 수준과 깊은 이해도, 진로에 관한 다방면의 정보수집 등 진로를 준비하는 태도가 갖추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목적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개인이 진로를 선택할 때 일을 통한 자기 개발, 성취감 등과 같은 개인 내적 가치 추구 측면을 선호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보상, 승진 기회, 장래 전망 등과 같은 개인 외적인 가치인 현실적인 요소를 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를 결정 하는데 확신이 적은 걸로 보아, 중학교 들어와서 1년이 되는 이 시기는 아직까지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학교적응의 수준

중학교 1학년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IV-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IV-3>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 N=364

변 인	하 위 요 인	M	SD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3.62	0.70
	학교환경적응	3.16	0.84
	학교친구적응	3.47	0.70
	학교교사적응	3.48	0.91
	학교수업적응	3.25	0.84
	전체	3.42	0.65

<표IV-3 >에 따르면 학교적응의 전체 평균은 3.42, 표준편차는 .65로 아동들이 대체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M=3.62), 교사적응(M=3.48), 친구적응(M=3.47)이 상대적으로 높아 새로이 맞이하는 중학교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학교생활이 대체로 즐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특히, 교사, 친구관계가 원만하여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운 걸로 보인다.

반면, 환경적응과 수업적응은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중학교라는 공간이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갑자기 어려워진 학교 수업의 적응을 다른 적응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비교

가. 중학교 1학년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차이

각 변인들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은 남녀의 차이가 없고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의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진로성숙도는 여자($M=3.50$)가 남자($M=3.36$)보다 더 높고, 학교적응은 남자($M=3.52$)가 여자($M=3.31$)보다 더 높은 걸로 나타났다.

먼저,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은 남녀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자기를 통제하고 환경에 역동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약하고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다(박인전, 이은미, 2002; 이완정, 2002)는 연구, 남학생의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연구(성순옥, 2013; 황여정, 김경근, 2014)도 있고,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측면에서 높게 나온 박상희(2009)와 김수진, 김순혜(2015)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안세영(2008)연구와는 일치하였고, 박명선, 유가효(2013)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와 일부 결과가 일치하였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의 성별에 관련된 연구는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한편,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은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볼 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아울러 학교의 자유기제를 통한 여러 진로에 임하는 자세, 진로 활동이 더욱 적극적이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반면, 학교 적응 면에서는 여학생이 새로운 환경인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게 남학생보다는 적응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학교 측이나, 가정에서는 여학생의 학교적응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또한,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남학생의 진로의식 성장에 보다 세심한 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자는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 수준과 학교적응 수준이 차이가 있음으로 나왔고,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도 수준이 더 높다는 송병국, 전주연(2014)

과 이기학, 한종철(1998) 연구 등 상당수 선행연구와 일치한 반면, 남자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여자 초등학생 보다 더 높다는 이현림, 김순미(2004)연구와 남녀 서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조연희, 2015; 채유경, 2003)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학교적응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난 최금란(2012)연구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김진희, 안현희(2012)의 연구결과와 동일했다. 반면 초등학생인 여아가 남아 보다 학교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신유자, 2005; 조수현, 2012), 여자 고등학생이 더 적응력이 높다는 권미정(2013) 연구와 남녀 차이가 없다는 이미현(2005) 연구와 차이가 있다.

<표IV-4>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분석 N=364

	성별	N	평 균	표준편차	t
자아탄력성	남자	181	3.59	0.59	0.66
	여자	183	3.55	0.60	
진로성숙도	남자	181	3.56	0.48	0.89**
	여자	183	3.50	0.48	
학 교 적 응	남자	181	3.52	0.62	3.06**
	여자	183	3.31	0.66	

*p<.05, **p<.01, ***p<.001

나.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별 차이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전체 진로성숙도의 평균이 남학생은 평균 3.36이고 여학생은 평균은 3.50으로 남녀 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기에, 하위요인에 따른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위요인별 수준정도를 보면, 유의수준이 0.001보다 낮은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목적성(M=3.40 > 3.13)이 높은 결

로 나타났고, 유의수준이 0.01보다 낮은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립성(M=3.83 > 3.66)이, 유의수준 0.05보다 낮은 수준에서 준비성(M=3.54 > 3.39)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확신성, 결정성 측면에서는 남녀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또한, 권미정(2013) 연구와 동일하게 독립성(M=3.66/3.83) 측면에서 평균이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목적성(M=3.13/3.40) 측면에서 다른 하위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은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적인 성향을, 진로에서도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치 추구 면에서는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표IV-5>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의 차이 분석 N=364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결정성	남자	181	3.27	0.75	-1.85
	여자	183	3.41	0.72	
목적성	남자	181	3.13	0.74	-3.62***
	여자	183	3.40	0.64	
독립성	남자	181	3.66	0.56	-2.86**
	여자	183	3.83	0.57	
확신성	남자	181	3.32	0.65	-0.36
	여자	183	3.35	0.62	
준비성	남자	181	3.39	0.60	-2.28*
	여자	183	3.54	0.65	
진로성숙 전체	남자	181	3.36	0.48	-2.89**
	여자	183	3.50	0.48	

*p<.05, **p<.01, ***p<.001

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하위변인별 차이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전체 학교적응의 평균이 남학생은 평균 3.52이고 여학생은 평균은 3.31로 남녀 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기에, 하위요인에 따른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위요인별 수준정도를 보면, 유의수준이 0.001보다 낮은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교사적응($M=3.64 > 3.36$)과 수업적응($M=3.42 > 3.10$)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 유의수준이 0.01보다 낮은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환경적응($M=3.45 > 3.20$)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적응, 친구적응 측면에서는 남녀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지만 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학교에 순조롭게 적응을 잘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여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원활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영주(2012)연구에서 학교수업 요인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온 연구와 일치했다.

또한, 교사적응에서는 남학생($M=3.64$)이 여학생($M=3.36$)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생활적응 면($M=3.65$, $M=3.58$)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적응 수준이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나타나 중학교 새내기인 중학교 1학년생들의 학교생활에 규칙을 잘 지키고 있고 학교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적응과 수업적응의 평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충분히 학교라는 공간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공부의 부담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듯하다.

<표IV-6>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의 차이 분석

N=364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환경적응	남자	181	3.45	0.80	3.12**
	여자	183	3.20	0.74	
교사적응	남자	181	3.64	0.75	3.33***
	여자	183	3.36	0.90	
수업적응	남자	181	3.42	0.81	3.88***
	여자	183	3.10	0.85	
생활적응	남자	181	3.65	0.75	0.92
	여자	183	3.58	0.73	
친구적응	남자	181	3.48	0.69	0.52
	여자	183	3.44	0.72	
학교적응전체	남자	181	3.52	0.62	3.06
	여자	183	3.31	0.66	

3.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변인 간 상관 분석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하위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IV-7>과 같다.

첫째, 상관 분석결과,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569 ($P<0.0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대인관계(.502), 낙관성(.470), 활력성(.447), 호기심(.425), 감정통제(.403) 순으로 모두 학교적응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가 친구적응(.570

<표 IV-7>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자아					진로							학교적응					
	탄력성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감정통제	낙관성	성숙도	확신성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	전체	생활적응	교사적응	환경적응	친구적응	수업적응
자아탄력성	1																	
대인관계	.757**	1																
활력성	.737**	.553**	1															
호기심	.850**	.445**	.475**	1														
감정통제	.701**	.467**	.494**	.461**	1													
낙관성	.793**	.592**	.546**	.555**	.497**	1												
진로성숙도	.362**	.276**	.263**	.311**	.335**	.209**	1											
확신성	.344**	.214**	.331**	.251**	.351**	.256**	.787**	1										
결정성	.257**	.198**	.187**	.223**	.248**	.132*	.927**	.648**	1									
목적성	.110*	.072	.019	.134*	.092	.052	.554**	.431**	.372**	1								
준비성	.454**	.408**	.259**	.400**	.373**	.270**	.587**	.266**	.485**	.142**	1							
독립성	.201**	.146**	.109*	.214**	.156**	.092	.710**	.468**	.531**	.563**	.369**	1						
학교적응전체	.569**	.502**	.447**	.425**	.403**	.470**	.339**	.308**	.270**	.056	.439**	.144**	1					
생활적응	.446**	.429**	.375**	.301**	.352**	.340**	.295**	.236**	.243**	.049	.344**	.162**	.714**	1				
교사적응	.442**	.351**	.340**	.373**	.275**	.353**	.279**	.230**	.235**	.034	.359**	.141**	.843**	.488**	1			
환경적응	.484**	.433**	.374**	.348**	.335**	.436**	.249**	.232**	.192**	.035	.383**	.051	.900**	.562**	.683**	1		
친구적응	.570**	.570**	.458**	.377**	.425**	.468**	.315**	.278**	.254**	.074	.383**	.163**	.751**	.490**	.550**	.654**	1	
수업적응	.387**	.296**	.302**	.315**	.290**	.302**	.241**	.274**	.184**	.026	.289**	.080	.782**	.471**	.610**	.596**	.467**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을 비롯하여 학교적응의 각 요인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등 관계적 요인이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낙관적이고 활력 있고 호기심 있는 개인적 특성 역시 학교적응 하위요인별 각각 관련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탄력성 중 감정통제 부분에서는 교사적응(.275)과 수업적응(.290)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간 관련성이 다른 변인들의 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적응은 진로성숙도와 .339($P < 0.01$)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진로준비성(.439), 진로확신성(.308), 진로결정성(.270), 진로독립성(.144)순으로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진로목적성(.056)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독립성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환경적응, 수업적응과는 정적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친구적응, 교사적응, 생활적응과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위에서 보면,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준비성이 학교적응과 가장 높은 관련성이 보여지며,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별로 보면, 친구적응(.383), 환경적응(.383), 교사적응(.359), 생활적응(.344), 수업적응(.289) 순으로 진로 준비성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높아질수록, 특히 진로에 대한 준비성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에 대한 사전이해, 관심도, 진로 정보수집능력을 포괄하는 준비성을 육성 시키는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의 시행은 학생들의 진로의식 함양은 물론 나아가서 학교의 적응까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자유학기제 보고서 결과와 일치한다(제주교육청 자유학기제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2013).

셋째,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는 .362 ($P < 0.01$)의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진로준비성(.454), 진로확신성(.344), 진로결정성(.257), 진로독립성(.201)은 P 가 0.01수준에서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했고, 진로목적성(.11)은 P 가 0.05수준에서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므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 전체와 진로 준비성(.454)과 확신성(.344)이 높은 상관성이 보였고, 진

로 준비성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408)와 호기심(.400)과도 높은 의미 있는 관련성이 보였다. 반면, 진로목적성은 전체 자아탄력성(.110)과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지만 하위요인별로는 호기심(.134)의 낮은 상관성을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한편,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감정통제(.335), 호기심(.311), 대인관계(.276), 활력성(.263), 낙관성(.209)순으로 모두 전체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호기심 있는 태도가 진로의식에 성숙에 높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는 하위요인별로 각각 서로 유의하게 상호연관을 보이므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 또한 진로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 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검증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으로,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해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의미 있는 영향력이 나와야 하고, 2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거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투입하면 두변인과의 관계의 영향력이 유의해야 한다. 3번째 단계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돌려서 매개변인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여도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을 때, 완전 매개했다고 한다. 그리고,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유의할 경우 부분 매개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Z값의 범위가 1.96 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따라서 매개효과는 이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성숙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진로성숙도가 부분매개함으로써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들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 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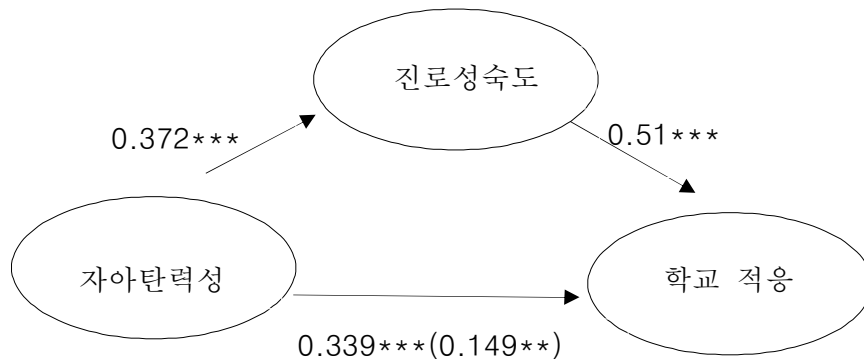
매개효과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3개의 회귀분석을 거치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거쳐서 독립변인인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돌려서 독립변인인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인인 학교 적응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돌려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즉, 독립변인으로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를 투입하여 두 변인이 종속변인인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표IV-8>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N=364)

단 계	모 형	R ²	F	B	S.E	베타	t	P 값
1 단 계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0.136	58.219***	0.385	0.05	0.372	7.63***	0
2 단 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0.115	170.397***	0.339	0.049	0.339	6.861***	0
3 단 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0.339	92.684***	0.149 0.528	0.046 0.048	0.149 0.51	3.24** 11.067***	0.001 0
Sobel Z 통계량		회귀계수(a)=.385		오차(b) = .05				
Z= 6.308***		회귀계수(b)=.528		오차(b) = .048				

*p<.05, **p<.01, ***p<.001



<그림 IV-1>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첫 번째 단계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에($F=58.219$, $p<0.001$)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측 하였다. 모형은 총 변량 중 13.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136$). 이에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으며($t=7.63$, $p<0.001$), 표준화된 계수 β 는 0.372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70.397$, $p<0.001$), 모형은 총 변량 중 1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115$).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으며($t=6.861$, $p<0.001$), 표준화된 계수 β 는 0.339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두 번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92.684$,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33.9%($R^2=0.339$)로 나타나 두 번째 단계모형($R^2=0.115$)에 비해 22.4% 정도의 설명량의 증가분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의 변량의 11%를 설명하였으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를 함께 포함된 모형은 학교적응의 변량의 33.9%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성숙도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가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후, 새롭게 투입된 독립변인은 유의미했고($t=11.067$, $p<0.001$), 표준화된 계수는 β 는 0.51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되었던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 보다는 낮아졌지만(β

=0.339→ β =0.149),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진로성숙도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가 갖는 매개효과가 양측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6.308$, $p<.001$). 즉,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진로성숙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결정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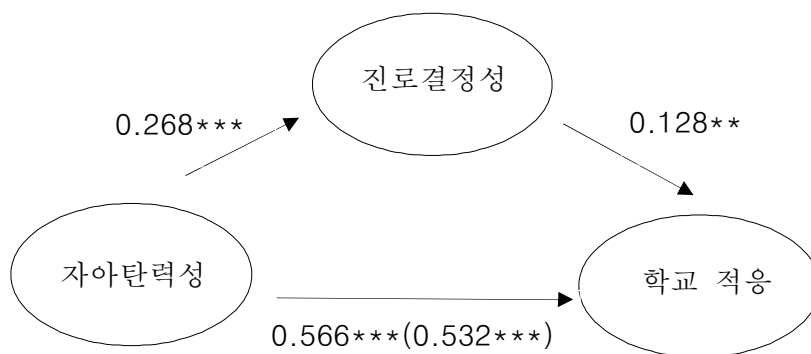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정성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IV-9>와 같고,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IV-2>와 같다.

<표IV-9>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서 진로 결정성의 매개효과 (N=364)

단 계	모 형	R ²	F	B	S.E	베타	t	P 값
1	자아탄력성							
단 계	→진로결정성	0.072	27.944**	0.272	0.052	0.268	5.286***	0
2	자아탄력성							
단 계	→학교적응	0.32	170.397**	0.585	0.045	0.566	13.054***	0
3	자아탄력성							
단 계	→학교적응	0.335	91.009**	0.55	0.046	0.532	11.934***	0
단 계	→진로결정성							
	학교적응			0.13	0.045	0.128	2.867**	0.004
Sobel Z 통계량			회귀계수(a)=0.272		오차(b) = .052			
Z=2.529*			회귀계수(b)=0.13		오차(b) = .045			

*p<.05, **p<.01, ***p<.001



<그림IV-2>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결정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에 ($F=27.944$, $p<0.001$) 자아탄력성이 진로의 결정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총 변량 중 7.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072$). 이에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으며($t=5.286$, $p<0.001$), 표준화된 계수 β 는 0.268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의 결정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70.397$, $p<0.001$), 모형은 총 변량 중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32$).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으며($t=13.054$, $p<0.001$), 표준화된 계수 β 는 0.566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은 학교 적응 변량의 32%($R^2=0.32$)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두 번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91.009$,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33.5%($R^2=0.335$)로 나타나 두 번째 단계모형($R^2=0.32$)에 비해 1.5% 정도의 설명량의 증가분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의 변량의 32%를 설명하였으나 자아탄력성과 진로 결정성을 함께 포함된 모델은 학교적응의 변량의 33.5%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결정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진로의 결정성이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후, 새롭게 투입된 독립변인은 유의미했고($t=2.867$, $p<0.01$), 표준화된 계수는 β 는 0.128로 진로의 결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되었던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 보다는 낮아졌지만($\beta=0.566 \rightarrow \beta=0.128$),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의 결정성이 부분 매개하여 학교 적응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인다는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검증되었다.

또한, 결정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이 갖는 부분 매개효과가 양측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529$, $p<.05$). 즉,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준비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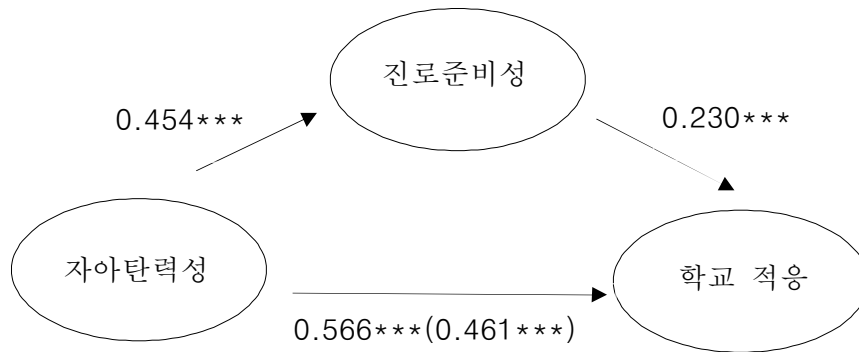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IV-10>과 같고,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IV-3>과 같다.

<표IV-10>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서 진로 준비성의 매개효과 (N=364)

단 계	모 형	R ²	F	B	S.E	베타	t	P 값
1 단 계	자아탄력성 →진로준비성	0.206	94.134***	0.438	0.045	0.454	9.702***	0
2 단 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0.32	170.397***	0.585	0.045	0.566	13.054***	0
3 단 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진로준비성	0.362	102.378***	0.477	0.049	0.461	9.777***	0
	학교적응			0.246	0.051	0.23	4.866***	0
Sobel Z 통계량			회귀계수(a)=.438		오차(b) = .045			
Z=4.32***			회귀계수(b)=.246		오차(b) = .051			

*p<.05, **p<.01, ***p<.001



<그림 IV-3>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준비성의 매개효과(N=364)

첫 번째 단계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에($F=94.134$, $p<0.001$)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모형은 총 변량 중 20.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206$). 이에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으며($t=9.702$, $p<0.001$), 표준화된 계수 β 는 0.454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의 준비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70.397$, $p<0.001$), 모형은 총 변량 중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32$).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으며($t=13.054$, $p<0.001$), 표준화된 계수 β 는 0.566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진로의 준비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두 번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02.378$,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36.2%($R^2=0.362$)로 나타나 두 번째 단계모형($R^2=0.32$)에 비해 4.2% 정도의 설명량의 증가분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의 변량의 32%를 설명하였으나 자아탄력성과 진로의 준비성을 함께 포함된 모델은 학교적응의 변량의 36.2%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의 준비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진로의 준비성이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후, 새롭게 투입된 독립변인은 유의미했고($t=4.866$, $p<0.001$), 표준화된 계수는 β 는 0.23으로 진로의 준비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그리고, 통제되었던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 보다는 낮아졌지만($\beta=0.566 \rightarrow \beta=0.461$),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준비성이 부분 매개하여 학교 적응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인다는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준비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인 준비성이 갖는 부분 매개효과가 양측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32, p<.001$). 즉,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인 준비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확산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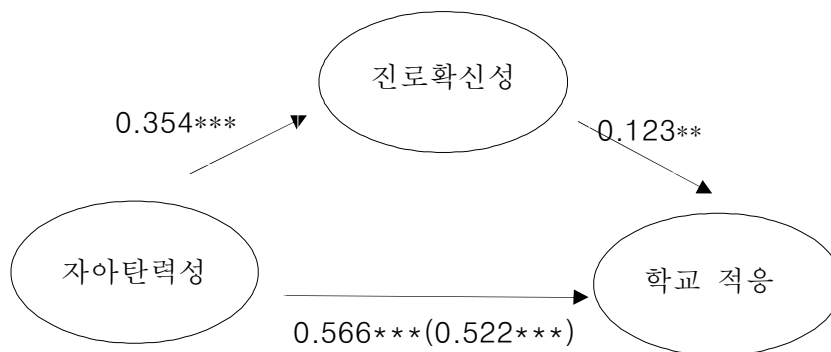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확산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산성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IV-11>과 같고,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IV-4>와 같다.

<표IV-11>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확신성의 매개효과(N=364)

단 계	모 형	R ²	F	B	S.E	베타	t	P 값
1	자아탄력성 →진로확신성	0.126	51.979***	0.349	0.048	0.354	7.21***	0
2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0.32	170.397***	0.585	0.045	0.566	13.054***	0
3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진로확신성 학교적응	0.333	90.258**	0.13	0.048	0.123	3.683**	0.008
Sobel Z 통계량			회귀계수(a)=.349		오차(b) = .048			
Z= 2.538*			회귀계수(b)=.13		오차(b) = .048			

*p<.05, **p<.01, ***p<.001



<그림 IV-4>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확신성의 매개효과(N=364)

첫 번째 단계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에($F=51.979$, $p<0.001$)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모형은 총 변량 중 1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126$). 이에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으며($t=7.21$, $p<0.001$), 표준화된 계수 β 는 0.354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의 확신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70.397$, $p<0.001$), 모형은 총 변량 중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32$).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으며($t=13.054$, $p<0.001$), 표준화된 계수 β 는 0.566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진로의 확신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두 번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90.258$,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33.3%($R^2=0.333$)로 나타나 두 번째 단계모형($R^2=0.32$)에 비해 1.3% 정도의 설명량의 증가분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의 변량의 32%를 설명하였으나 자아탄력성과 진로의 결정성을 함께 포함된 모델은 학교적응의 변량의 33.3%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의 확신성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진로의 확신성이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후, 새롭게 투입된 독립변인은 유의미했고($t=3.683$, $p<0.001$), 표준화된 계수는 β 는 0.123으로 진로의 확신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되었던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 보다는 낮아졌지만($\beta=0.566 \rightarrow \beta=0.522$),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확신성이 부분 매개하여 학교 적응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인다.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확신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인 확신성이 갖는 부분 매개효과가 양측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538$ $p<.05$). 즉,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인 확

신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독립성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독립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IV-12>에 제시하였다.

<표IV-12>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독립성의 매개효과(N=364)

단 계	모 형	R ²	F	B	S.E	베타	t	P 값
1 단 계	자아탄력성 →진로독립성	0.43	16.439**	0.195	0.048	0.208	4.054	0
2 단 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0.32	170.397**	0.585	0.045	0.566	13.054	0
3 단 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0.321	85.231	0.579	0.046	0.56	12.63	0
	→진로독립성			0.03	0.049	0.027	0.604	0.546
	학교적응							

*p<.05, **p<.01, ***p<.001 p= NS

1단계 자아탄력성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선 매개 변인 독립성을 투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이모형은 적합지 않다.

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목적성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목적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표IV-13>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목적성의 매개효과 (N=364)

단	모형	R ²	F	B	S.E	베타	t	P
계								값
1	자아탄력성							
단		0.013	4.901*	0.112	0.051	0.116	2.214*	0.02
계	→진로목적성							
2	자아탄력성							
단	→학교적응	0.32	170.397***	0.585	0.045	0.566	13.054***	0
계								
3	자아탄력성							
단	→학교적응			0.586	0.045	0.567	12.933***	0
계		0.32	84.994					
	→진로목적성			-0.01	0.046	-0.009	-0.206	0.8
	학교적응							

*p<.05, **p<.01,***p<.001 p= NS

1단계 자아탄력성이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선 매개 변인 목적성을 투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이모형은 적합지 않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1년이 지난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라 각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두 변인 사이에서 진로성숙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면서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

1. 결과에 대한 논의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 결과를 요약하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일반적 수준은 중간 값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결과는 2015년도 12월 자료를 수집하는 시점에서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학교에 적응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중학교 1학년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진로성숙도의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응답자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 수준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검증되었고, 자아탄력성 수준은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를 통제하고 환경에 역동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써 안세영(2008)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중학교 1학년생의 진로성숙도는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도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김현옥, 1989; 송병국, 전주연, 2014; 이기학, 한종철, 1998). 이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진로성숙도 하위변인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독립성,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 목적성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진로에 대한 독립성이 다른 변인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중학교 1학년생 역시 사춘기의 특성인 심리적 독립을 원하는 성향과 관련지어 보여지는 반면, 목적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아 연구대상은 이제야 탐색기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기에 진로선택 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목적성 측면에는 다른 변인보다 미성숙한 걸로 보인다. 이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치 추구 면에서의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기학, 한종철(1998)은 확고하고 가치지향적인 개인적 내적가치가 정립된 상태에서의 직업을 선택할 때 만족스런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직업 선택 시 당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경제적 보상 같은 외적 가치보다 자기개발, 성취감 등 개인 내적 가치추구 측면이 높다면 진로 태도 성숙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태도가 성숙할수록 직업에 대한 가치가 외적 가치에서 내적가치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직업 가치와 비슷한 개념인 진로 태도 성숙 중에 목적성 차원의 성숙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 가치영역 부분에 관심을 두고 진로가치교육 혹은 진로 가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목적성, 독립성, 준비성의 하위요인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성별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목적성과 준비성에서 여학생이 높고 확신성과 독립성은 남학생이 높다는 이기학(1997) 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중학교 1학년생의 학교적응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는 최금란(2012) 연구 등 일부 일치했고 대다수의 여학생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이 중학교에 진학한 시기의 여학생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남학생보다 성숙하여 더 예민하여 스트레스에 민감 할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기에 새로운 학교생활의 적응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생활, 수업,

교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왔고, 학교수업 요인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온 이영주(2012) 연구와 일치했다.

이러한 각 변인들의 성별 차이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중1 여학생에게는 학교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중1 남학생에게는 진로 교육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아울러 하위요인별 연구는 보다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성별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중학교 1학년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지지 되었다.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를 통제하고 환경에 역동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적응 수준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송화, 2011; 성순옥, 2013; 이경선, 2011; 이명순, 2014; 임우섭, 김용주, 2015; 조은정, 2012; 주정현, 2011; 채호숙, 2008; 최금란,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대인 관계에서 높은 상관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친구적응이 높은 상관이 나온 것으로 볼 때, 학교적응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청소년기의 대인 관계적 요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적응은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왜 공부를 하는지 목적의식이 있으면 학교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금지현, 2012; 김보현, 2013; 김은정, 2005; 김주희, 2010; 박은영, 2011; 소연희, 2011; 오정아, 2014; 정주원, 2014; 조연희, 2015)를 지지한다. 이는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의 적응도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학교적응과 진로의 준비성이 유의미한 상관을 가장 높게 보인 반면에, 진로의 독립성은 미약한 정적 상관이, 진로의 목적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보면,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두 변인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김송화, 2011; 안

세영, 2008; 오석구, 2005; 이경선, 남현우, 2011; 이혜숙, 2008; 최경자, 2007)와 일치한다. 특히, 자아탄력성 전체와 진로 준비성과 진로 확신성이 높은 상관성이 보였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호기심 있는 태도가 진로의식의 성숙에 높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는 하위요인별로 각각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는 상호연관을 보이므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아지고, 반대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호기심 있고 적절한 감정통제는 진로의 성숙한 태도에 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데도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감정기복이 심한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교 1학년생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영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구와의 적응에 영향력이 커서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에게는 자아탄력성이 필요한 요인이라 사료된다.

셋째, 중학교 1학년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고 연구 결과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진로성숙도가 매개효과를 보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본다면 진로의 준비성, 결정성, 확신성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진로의 목적성, 독립성은 통계적으로 매개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보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최금란(2012) 연구, 마이스터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우섭, 김용주(2015), 특성화고 대상으로 권미정(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진로성숙도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김송화(2011) 등 소수의 몇몇 연구들이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의 세 변인의 연관성을 입증하였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임우섭, 김용주의 연구(2015)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마이스터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부모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유민(201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라 변인이 매개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

었다. 이에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은 다른 매개 변인을 찾아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선 현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환경에서의 탄력적인 적응에 주목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아탄력성이 학교의 건강한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탄력적인 사람들은 변화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들의 성공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탄력성을 주목하였는데 최근 해외에서 꾸준히 탄력성을 연구하고 있는 Masten (2014) 역시 탄력성 연구에 관심을 갖기를 독려했는데, 그는 이제는 세계에 위협에 처한 아이들이 단지 먹고사는 문제인 생존이라는 목표에서 그 아이들의 청소년기에 건강한 발달과 탄력성을 촉진시키는 일로 관심이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학교라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고 부적응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및 신체적 이상증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청소년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자아탄력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적 중재 프로그램개발은 물론 자아탄력적이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론적 근거를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적응을 위해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본 연구의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검증은 학교의 건강한 적응을 목표로 하고 현재 자유학기제를 전국적인 실시가 결정이 난 시점에서, 현 교육현장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영석(2010)은 매개효과 검증이란 상담현장에서 보다 개입해야 할 변인을 확인하고 상담개입전략을 수립하는 실제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 말은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의 결정적 변인으로 거론한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지라도 진로에 관한 관심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 어떤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는

지에 대한 깊게 이해를 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직업과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하고 목표에 따라 부단히 노력하는 진로의식의 성숙을 개입시키면, 앞에서 보았듯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학교에서의 만족스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진로성숙도의 변인을 세부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에서 보았는데, 진로의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 차원에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에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계획을 세우는 진로의 준비성 차원에서 주목하고, 철저하게 자기 이해와 직업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진로의 확신성, 결정성 차원에 집중해야 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 진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학교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이론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사고와 관심사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로상담과 진로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이고 예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화된 현 사회의 맞게 진로 프로그램의 제작과 진로교육에 적용, 상담개입 전략에의 이용으로 청소년들의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가져오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본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행복과도 직결된 학교적응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자아탄력성의 신장과 진로 교육의 연결을 고려해 보고 진로교육 및 진로프로그램을 통한 성숙한 진로태도가 학교적응을 원만히 하여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검증하였기에 학교적응 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할 것을 기대 한다. 이에 진로성숙도 신장을 위한 학교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부적응 상담의 개입전략이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치료적 차원의 접근을 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 학교현장에서 진로프로그램 자유학기제를 운영에 좀 더 효율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아탄력성과 성숙한 진로의식과의 연관성 있는 활동이 다양하게 행해지는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상에서 연구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표본 대상과 표집방법에 대한 한계가 있다. 제주도에 소재한 세 개의 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중학교 1학년생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확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집 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척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비록 검증된 척도를 사용할지라도 척도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질문항목에 대한 면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원 제작자와 수정본완해서 사용한 연구자와의 사이에서 간혹 잘못된 질문항목과 하위요인의 연결을 발견될 수도 있다. 본 연구자도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 질문 문항 연결을 재차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자료수집시 한계로써 수집된 설문지는 자기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기에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이 갖는 제한점이 있다. 대상자가 자신을 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실제 상황보다 더 좋게 응답하거나 그 반대로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여 과장하여 나쁘게 응답할 수도 있지만, 연구자가 이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설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하였는지의 여부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개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변인의 관찰자 보고식 질문지를 추가하거나 심층적인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써 주요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매개효과는 시간에 따라 확인된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측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제언한다. 즉,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제한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점을 볼 때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했다면 보다 그 연구결과가 풍부하여 상담 장면에서의 개입이나 프로그램제작에 더욱 유용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사이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지만 보다 연구영역을 확장하여 자아탄력성의 어떤 영역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학교적응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연구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모색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학교적응을 세부적, 분석적으로 봄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은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문제가 없었으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낮아 하위요인별 분석에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2007). **현대사회와 아동 : 심리학적 이해**. 시그마프레스
-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415-438.
- 강정혜(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창실(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민경, 서보준(201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21(1), 75-112
- 구형모(2000) **자아탄력 집단 성격 특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정(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지현(2012)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3), 5-26.
- 김강호(2009)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8(4), 183-200.
- 김경령(2001)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수(2009) **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현(2012)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환, 김지혜(2011) 부모 · 친구 ·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 김봉환(2010) 여대생의 적응유연성,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93-111.

- 김봉환 외 공저(2010)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학지사
- 김수진(201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김순혜(2015)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49-70.
- 김영란, 하정(2015)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4), 157-169.
- 김영은(201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자본, 자아탄력성,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2005) **인지 행동적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5)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부적응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김상미, 남진열(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상희(2010)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욱(2003)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송화(201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와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송성화, 조민경(2013)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6(4), 85-107.
- 김수진(201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김순혜(2015)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49-70.
-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영은(201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자본, 자아탄력성, 학업성취의 구**

조적관계. 석사학위논문.

- 김예수, 조봉환(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2(1), 87-103.
- 김용래(2000) 학교 학습동기척도와 학교적응척도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 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용래, 허남진(2003) 학습동기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20, 5-24.
- 김유진(2010)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외향성, 자아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황순택(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2(2), 343-362.
- 김중성, 이병훈(2010)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33-59.
- 김주희(2010) **활동중심 진로인식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주관적 안녕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진희, 안현의(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83) **진로교육의 본질.** 서울: 평민사.
- 남궁정(2004). 청소년을 위한 진로성숙도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7(2), 73-91.
- 노성호(2005)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요인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형사정책연구**, 63, 295-330.
- 류보라, 김소현(2014) 중학생의 독서와 진로 탐색의 관계. **독서연구**, 33, 353-385.
- 문은식(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 문은식, 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민영순(1995) **가정환경 및 학급사회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

- 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광(2001) **초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명선, 유가호(2013)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과학논집**, 39(2), 39-68.
- 박병기, 이선영, 송정화(2010)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교육심리연구**, 24(1), 61-82.
- 박상희(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2), 59-81.
- 박아람, 백지숙(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 자아탄력성과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3), 49-62.
- 박은영(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박은주, 심우엽(2005)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4(1), 285-310.
- 박인전, 이은미(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 박재산, 문재우(2006)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 내 갈등과 건강 보호행동으로서의 자아개념, 학교적응 간의 인과관계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2), 91-107.
- 박지현(2003)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5)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분석 고려사항.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 -1168.
- 서우석(2015)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8(4), 149-171.
- 서진숙, 이동혁(2010)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안녕감을 매개하는 자아정체감**. **상담학연구**, 11(4), 1599-1622.
- 소연희(2011)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0(4),

203-220.

- 송미령(2005)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령, 이재연(2011)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19-244.
-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2013)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청소년학연구**. 20(8), 49-70.
- 신윤자(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태섭, 이현주, 권희경(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관계. **열린교육연구**, 23(3), 45-64.
- 심지연(2015)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세영(2008).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석, 김명석(2015)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창업동아리활동이 창업의지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233-240.
- 오정아, 정윤태(2015) 사회지지와 학교적응이 중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 도.농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9), 49-77.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 심리연구**, 18(1), 393-408.
- 유성경,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은애(2008)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적 적응의 관계. **사회복지학생연구논총**, 1, 82-103.
- 유은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모(2015) **긍정적 정신건강과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 이경선, 남현우(2011)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0(0), 233-256.
- 이기학, 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1), 219-255.
- 이기학, 한종철(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0(1), 167-189.
- 이명순(2014)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 상담연구**, 22(1), 335-356.
- 이미현(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필(1990) 학교생활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분석.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서유란(2012) 한국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성차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37-53.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2004)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 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63-72.
- 이영재(1989) A 성격유형과 생활스트레스간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류진아(2013)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049-2066.
- 이예승(2004)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정(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23(1), 1-16.
- 이유민(2014)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신, 김한성(2014)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63 -282.
- 이은정, 장윤옥(2008)개인, 가족, 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53-376.
- 이은주(2007)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아동의 내현적 문제의 보호요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8(2), 31-57.
-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2012)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233-246.
- 이재연(2014)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2004)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다중지능과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1(2), 83-99.
- 이해리, 조한익(2006) 한국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8(2), 353-371.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이론 연구 및 적용**. 학지사.
- 이희선(201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9(6), 109 -122.
- 임우섭, 김용주(2015)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3(4), 31-51.
-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주영, 윤경자(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113-130.
- 임효진, 김재철(2014) 중학교 학생들의 성취가치, 자기조절, 학업적응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161-190.
- 장경문(2011) 심리적통제와 자아분화수준이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한국아동권리학회, 15(1), 89-108.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장휘숙(2009) **청년심리학**, 박영사
- 장휘숙(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한국심리학회: 발달**, 14(1), 113 -127.
- 전주연, 송병국(2014)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3), 171-200.
- 정주원(201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1), 101-118.
- 정지영(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지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 박소영(2015)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초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3(4), 801-818.
- 조수현(2012) **초등학생의 부모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연희(2015)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놀이치료학회지**, 15(1), 35-40.
- 주정현(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이제경 외(2010) **진로상담이론**, 학지사.
- 채유경(2003)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호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호숙(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은정(2014)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자(2007)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금란(2012)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미, 이문희(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 연구**, 19(2), 171-187.
- 한영숙(2005)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3), 71-82.
- 홍은숙(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황여정, 김경근(2014)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사회심리학적 접근.** **교육사회학연구**, 24(1), 205-229
- 황은혜(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
원석사학위논문.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1, 39-101.
- Block J. H.(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1
- Block, J. and A. Kremen(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aspi, A., & Silva, P. A.(1995) Temperamental qualities at age 3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6, 486-498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259.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 Use Manual Monterey. Ca : CTB/. McGraw-Hill.
- Egeland, B., & Car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 s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17-528
- Fishbein, M & Aizen, I. B.(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acdcsetts; Addison - Wesley.
- Garmezy, N. (1983). Stressor in childhood. In N. Garm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 McGraw-Hill.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irby,1.D.& Fraser, M. W.(2000). Risk and Resiliencein Childhood.In M. W. Fr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pp.10-33).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Lazarus. R. S.& Averill. J. R.(1972). Emotion and cogn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nxiety.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2, 242-283.
- Lerner, R. (1995) *America's youth in crisis*. Sage Publications, Inc
- Masten, A., K. Best, and N. Garmezy(1991).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990), 425-444.
- Masten, A. S. (2014) Global perspectives on resilience in children and youth. *Child Development*, 85(1), 6-20
- Newman. R.(2005). APA's Resilience Initiativ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6(3), 227.
- Robin 외(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171.
- Rutter, M.(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utter, M. (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heldon, K. M., & King, L. (2001)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56(3), 216-217
- Tiet, Q. Q., Bird, H. R., Davies, M., Hoven, C., Cohen, P., Jensen, P., & Goodman, S.,(1998) Adverse Life Events and Resili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ce Psychiatry*, 37, 1191-1200
- Walls, R. T. (2000). Vocational cognition: Accuracy of 3rd-, 6th-, 9th, and 12th-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137-144.

<Abstract>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in relation to
between Ego-Resilience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Lee, Seung mi

Major of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Sung bong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in relationship of Ego-resilience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based on the perce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e set following three research problems;

First, how ego-resilience, career matur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which middle school student recognized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sex?

Second, what relationship is among ego-resilience, career matur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ird, how career maturity shows mediating effect between ego-resilience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two schools were selected from each Jeju and Seogwipo randomly. The subjects were 210 students from middle school in Jeju and 190 students from Seogwipo. We conducted the survey for 3 weeks from 7th to 25th December 2015.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test, Baron & Kenny's Procedures for mediation hypotheses with SPSS 18.0. After that, we performed a Sobel test.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y sex in ego-resilience, career matur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perceived by 1st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is higher in girls but adaptation to school life is higher in boys. Otherwise, there is no difference in ego-resilience by sex.

Second, the correlation of students' career maturity,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ego-resilience were thought to be statistically meaningful. There were correlation among the sub-factors but not between purpose of career maturity and whole sub-factors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Third, ego-resilience improves adaptation to school life directly as career maturity partially mediates in process. Sub-factors for career maturity - career readiness, self-determination, conviction - have partial effect on relationship of ego-resilience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However, career purpose, independence had no influence statistically on mediating it.

In conclusion, career maturity has partial effect in relationship of ego-resilience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Ego-resilience has influence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not only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by mediating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is research, we prove that proper career education and program promotes students' satisfaction. Therefore, we expect to develop the program of school adaptation for student applying the intervention of counselling for maladjusted students.

부 록 목 차

부록1. 자아탄력성 설문지.....	83
부록2. 진로성숙도 설문지.....	84
부록3. 학교적응 설문지.....	86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의 개개인의 응답은 학문적인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정답이 있거나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성적 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문항마다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 2개 이상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엔 연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안하게 되며 긍정적인 성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석사과정: 이승미
지도교수: 김성봉

lee7134969@naver.com

<주의사항>

1.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해 주세요
2. 정답이 없으므로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 떠오른 생각을 솔직하게 체크해주세요

*응답자의 인적사항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표 해주세요.

성별 ① 남__ ② 여__

1.이 검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체크(V) 해주세요.

	문 항	매우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1	2	3	4	5
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1	2	3	4	5
3	나는 새롭고 평소와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1	2	3	4	5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6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1	2	3	4	5
7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	2	3	4	5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5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2	나의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1	2	3	4	5
1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1	2	3	4	5

2.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진로 성숙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에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세요

	문 항	결코 그렇 지않 다	별로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대체 로그 렇다	항상 그렇 다
1	내가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1	2	3	4	5
2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 할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4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6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7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	2	3	4	5
9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1	2	3	4	5
10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11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 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3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어떤 직업이 미래에 전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1	2	3	4	5
15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16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1	2	3	4	5
17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1	2	3	4	5
18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	2	3	4	5

19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1	2	3	4	5
21	주위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	1	2	3	4	5
22	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월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23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24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는다.	1	2	3	4	5
25	나는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다.	1	2	3	4	5
26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다.	1	2	3	4	5
27	나는 내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 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1	2	3	4	5
28	내가 선택한 직업에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지 걱정이다.	1	2	3	4	5
29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원한다.	1	2	3	4	5
30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1	2	3	4	5
31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1	2	3	4	5
32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한다.	1	2	3	4	5
33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1	2	3	4	5
34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기를 원한다.	1	2	3	4	5
35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1	2	3	4	5
36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1	2	3	4	5
37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 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38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5
39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1	2	3	4	5
40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1	2	3	4	5

41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1	2	3	4	5
42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43	특별한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1	2	3	4	5
44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 할 것이다.	1	2	3	4	5
45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46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1	2	3	4	5
47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을 것 같다.	1	2	3	4	5

3.이 검사는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에 가까운 것에 체크(✓)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학교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 쓴다.		1	2	3	4	5
4	나는 학교에서 나에게 맡기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1	2	3	4	5
5	나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다.		1	2	3	4	5
6	나는 학교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한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학교 내의 각종 게시물이나 안내 방송에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9	나는 우리학교 내의 구석구석이 잘 정돈되어 있어 안정감을 느낀다.		1	2	3	4	5
10	나는 우리학교 내의 모든 공간은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1	2	3	4	5
11	나는 학교에 들어서면 '공부하는 환경'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1	2	3	4	5

12	나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든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한다.	1	2	3	4	5
13	학교에는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다.	1	2	3	4	5
14	나는 우리 반 친구들 중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하고 도와준다.	1	2	3	4	5
15	나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는 경우에 내가 먼저 사과를 한다.	1	2	3	4	5
16	나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학교친구와 먼저 의논한다.	1	2	3	4	5
17	나는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친절한 우리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1	2	3	4	5
18	나는 학교선생님을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1	2	3	4	5
19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1	2	3	4	5
20	나는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1	2	3	4	5
21	나는 어느 교과목의 수업 시간에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22	나는 학교수업 시간 중에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	1	2	3	4	5
23	나는 학교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지나간다.	1	2	3	4	5
24	나는 학교수업 시간 중 선생님의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한다.	1	2	3	4	5
25	나는 이번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